



당신이 참여하기에 따뜻한 공간

-여학생 휴게실-



여학생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만들어 나가는
심과 소통의 공간입니다 :D

모두가 함께 쓰는 여휴

이것만은 꼭 지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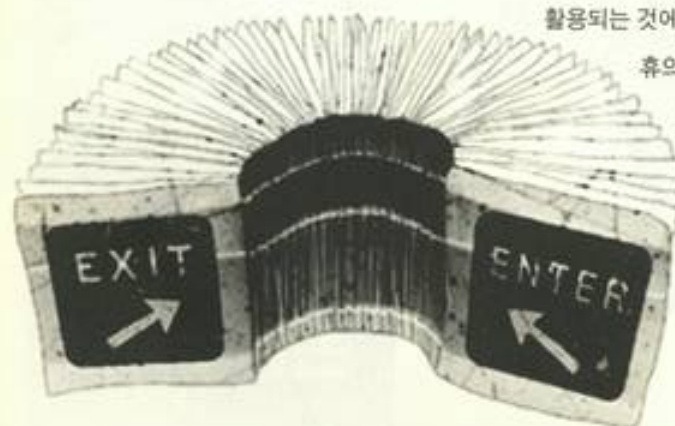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랫목(我來睦)

자료집
을 발간하며..

지난 일년 간 등에 번쩍 서에 번쩍 온 학교의 여휴를 누볐습니다. 혹시 저희를 못 보셨다면, 축지법을 사용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여휴는 너무 곳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학내 여휴 지도를 한손에 들고 공대 어딘가에 숨어있는 여휴를 찾을 땐 정말이지 빙글빙글 미로 속을 헤매듯 한참을 찾아다녔죠. 이렇게 모든 여휴를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휴를 햇빛도 들지 않는 학내 지하에 만든 것은, 그리고 쓸 수 있는 소파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은 건 과연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여휴는 누구의 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동동 떠다니고 있었을까요?

이 음모론을 시작으로 저희 아랫목은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여휴에 무엇이 부족한지,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왜 여휴에서 자다 일어날 때 뒷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나야 했는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알아낸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걸 담진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 함께 읽어보고 현재 여휴의 실태에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어온 여휴에 살짝 화를 내보았으면, 앞으로 색다르게 변해갈 여휴의 모습도 함께 꿈꾸어 봤으면 해요. 저희 아랫목은 여휴가 단지 심의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에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년 간 여휴의 색다른 변화를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휴의 변화를 다함께 꿈꿀 수 있길 바라며,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래人목: 我來睦]의 사방사방한 자료집, 시작합니다♡



※ 자료집에서는 '2007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래人목: 我來睦]'의 애칭인 '아랫목'을 운동팀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_.

의외로 사방한 07 아랫목 자료집



일년 동안의
아랫목
이야기

- 06_우리가 여학생 휴게실을 이야기하는 이유
- 08_여휴에 대한 달콤한 상상, 아랫목
- 10_2007년, 아랫목 일 년 나기
- 12_♡당신의 아랫목♡ 행사에 대한 아랫목의 입장
- 14_여학생 휴게실 댓글 놀이
- 16_학내 여학생 휴게실 탐방
- 27_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

06~27

단대 여휴
이야기

- 28_문과대 여휴 이야기
- 29_신과대 여휴 이야기
- 31_법과대학 성평등주간 여휴 행사
- 34_♡완전소중 법대여휴♡

28~35

옆 동네
이야기

- 36_송실대학교 | 파자마 시스터즈와 함께한 이야기 한공기
- 41_한양대학교 | 내게 완전 소중한 공간, 여학생 휴게실♡

36~43

영양가 있는
이야기

- 44_생리결석계 소개 | 여러분, 학사포털에 가보셨나요?
- 46_여학생을 위한 학내 공간

44~47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48_너, 나 그리고 우리의 여학생 휴게실
- 52_여휴단상
- 54_아랫목 후기

48~55



우리가 여학생 휴게실을 이야기하는 이유

대학생활 시작을 앞둔 무렵, 몇 가지 로망이 있었다. 잔디밭에 누워 햇살을 느끼는 거나,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새벽별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했고, 나의 로망실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래저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잔디밭에 눕자니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아무데나 눕는다.'는 시선이 날 불편하게 했고, 밤샘 시험공부를 하다 조금 쉬어볼까 과방에 가보니, 남자선배들이 모여 있어 말 놓고 누워 쉴 수 없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나의 쉼 공간과 대학생활의 로망이 사라진다니, 조금 서글웠다. 분명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했는데, 왜 이렇게 편하게 쉴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까?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다. 남성 중심적 학내 분위기는 여학생에게 끊임없이 '조신함'을 강요한다. '여자'라면 아무데서나 누워서는 안 되며, 큰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잔디밭에 누웠을 때는 여학생을 대상화하는 눈빛이 돌아온다. 혹시 치마를 입었을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된다. 이렇듯 여학생으로서의 대학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여학생휴게실(이하 여휴)은 학내에서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여학생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학내에서 가장 먼저 여휴가 세워진 곳은 논지당과 학생회관이다. 1953년 여학생들의 교양을 높이고,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논지당과 1977년에 만들어진 학생회관 여휴는 당시 굉장히 소수였던 여학생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점차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에서 거론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여학생이 쉬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었고, 현재 학내에는 총 13개의 여휴가 각 단과대마다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열 평 남짓한 공간에 냉난방,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여휴가 대부분이며, 시설 역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왜 '여학생'휴게실만 있는지 반문하는 일부 남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휴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채 반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운동의 방향은 단지 열악한 환경 문제개선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여휴에 대한 학내 인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2001년 13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여휴만만>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하였다. 그 때 당시 여휴는 지금과 변한 차이가 없이 모호한 관리체계와, '공간'만

제공한 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학교 측 태도로 방치되어 있었다. <여휴만만>에서는 각 단과대에 있는 여휴의 실태보고와, 왜 여휴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여휴만만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여학생들이 학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고자 노력하였다. 권리장전에서는 여휴가 필요한 이유, 여휴를 이용하는 여학생들의 의무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적극적인 권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13대 총여학생회의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운동은 실태조사와 여휴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내 여휴는 변한 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여휴의 기능이 단지 휴식의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여학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9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여휴만만>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래사람: 我來睦>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007년 한 해 동안 여휴의 환경 개선과 여휴의 소통공간으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여휴는 단지 휴식하기 위한 공간이라기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학내의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의 산물이자, 여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는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여휴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운동의 주체는 단지 관심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아닌, 여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너는 보통 여학대 휴게실에서 잠을 잔다. 학교 내에서 편하게 앉아서 편히 쉬기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학대는 너에게는 엄청 편한 공간이다. 여학대 나 볼 만하다. 너와 쉬러오는 여학생들이 꽤 많았다. 아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괜히 '말 시킴'하게 말이나 경어보니까 내가 언제 볼 영희 씨나 혜복 씨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없이 웃어본다.

여휴에 대한 달콤한 상상 아랫목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운동팀의 이름인 '아랫목'은 이런 상상에서 만들어졌다. 여휴가 단순히 쉬의 공간으로만 남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던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운동팀은 몸의 휴식은 물론이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여학생들 간의 교류를 늘림으로써 마음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변화를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여학생들이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일 뿐 만 아니라 여학생들만의 공간으로서 서로의 고민과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시켜보고자 '아랫목'이 탄생한 것이다. 기존의 여휴 중에는 여학생들이 몸만 쉬기에도 열악한 공간-환기가 잘 안되고 작은 쓰레기통만 있어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점 등-들이 많았다. 따라서 '아랫목'이란 이미지에 맞게 여휴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휴를 '아랫목'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소풍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몸 뿐 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공간, 문화 생산과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 공동체로서의 여휴의 모습을 모색해 볼으로써 여휴를 여학생들의 '아랫목'으로 만들어 보기위해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랫목' 운동을 시작하였다.

여휴의 여휴



졸업전까지 여휴에서 꼭 자보자!!
그것이 우리의 임무!!!!



2007년, 아랫목 일년 나기

소식지 발간과 설문조사

아랫목에서는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아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현재 여휴마다 환경이 다른 실정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휴를 '당신이 오기에 따뜻한 공간, 我來處'으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아랫목에서는 행사 홍보의 일환으로 여휴, 그리고 여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아랫목의 환경 개선 운동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소식지를 발간하였고, 대동제 기간 동안 열린 <당신의 아랫목>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두 번째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또한 여휴 환경 개선

운동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각 여휴 테이블에 붙여 두었다. 소식지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과 댓글 등을 통한 참여는 매우 적조했던 반면, 여휴가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지와 필요한 비품을 묻는 설문지에는 비교적 다수의 여학생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이용이 활성화된 여휴에 국한했을 뿐, 상황이 열악한 휴게실에서는 참여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의견 수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2학기 학내 여휴 실태 조사와 여휴 환경 개선 요구안의 기초 자료가 되었으나,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동제 기간 <당신의 아랫목>

2007년도 1학기 활동으로 아랫목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당신의 아랫목> 행사이다. 기획단 내에서 여휴에서 기획할 수 있는 행사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오가던 중 대동제 기간 동안 여휴에서 대안적인 의미의 축제를 벌여보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여휴가 너무 삭막한 공간이다'라는 문제제기와 기존 축제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여휴가 그저 '빈 공간, 활용 불가능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공간, 따뜻해서 자꾸만 오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추진하였다.

아랫목은 '여휴에서의 영화 상영, 사진 전시, 쪽글 전시' 등의 예시를 들고 신청 기간을 공지해 단대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벌이는 행사를 기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다수 여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주최 측의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물론 관심을 보였던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값진 기회 또한 얻었으나, <당신의 아랫목>이라는 행사 자체를 크게 이슈화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여휴 환경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획의 시간에 비해 일시적인 단일 행사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요구안 작성

아랫목에서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학내 곳곳의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내 모든 여휴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으며 이로써 각 여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요구안>이 작성되었고,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와 생활관리부, 총학생회, 생활관리부, 총학생회, 생활관리부, 총학생회, 생활관리부)를 통해 44대 중운위의 요구안으로 의결되었다. 총여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여학생에게 요구안을 전달하였으며, 각 단과대의 여휴를 관리하고 있는 단과대 사무실과의 논의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실태 조사를 하면서 여휴 공간 활용에 관한 최소한의 이용 수칙을 계서물로 만들어놓는 것과, 학생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또한 대두되었다. 이에 아랫목에서는 여휴 이용 수칙과 문패를 만들어 각 여휴에 게시하였다. 각 학생회에서의 함께 해나가야 할 노력에 대해서는 중운위를 통해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학생회 내부에 여학생 주체(여성주체)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여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제 2007년의 학생회 활동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내년 총학생회와 중운위 차원의 여휴 환경 개선 운동이 잘 이뤄져야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의 아랫목♡ 행사에 대한 아랫목의 입장

계획은 이랬다.

지나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다. 바닥을 치며, 상큼하게 다시 오르자고 다짐해 봐도 후회되는 일 말이다. 아랫목에서는 사방사방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놀라운 열의와 고도의 집중력 뜨거운 집착으로 대동제 기간 <당신의 아랫목> 행사를 마쳤다. 처음에는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처럼 '여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를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조사를 하고, 요구안을 만드는 것에 우리는 2학기를 모두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대한 것을 1학기 때 하진 못하더라도 원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에 맞춘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하여 기획했다. 2학기, 대동제 기간 동안의 행사! <당신의 아랫목♡>

왜 여휴엔 따뜻함이 없고, 이야기가 없을까? 뭔가 생산적인 공간이나 나눔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여휴에선 의외로 많은 것들이 가능했다. 비어 있는 게시판에 자신이 내보이고픈, 그리고 누군가의 피드백이 필요한, 사진과 쪽글을 살짝쯤 붙여놓을 수도 있었다. 여휴 이용자들에게 약간의 양해를 구한 뒤, 시간을 잡아 영화를 같이 볼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생각을 더해보니 낯낯하고 어두운 문대 여휴는 영화 상영을 하기에 그만이었고, 이용하는 여학생 수는 많으나 공간은 협소하고 게시판이 텅 비어있는 사회대 여휴는 사진 전시나 쪽글을 전시하기에 그만이었다. 법대 여휴는 워낙에 사방하여 이용도가 높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하였고, 학관 여휴와 중도 여휴 또한 이용도가 높은 곳이니 무엇이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추진했다.

아랫목이 다 하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은가. 홍보물을 만들었다. <빈방있음> 이 얼마나 적절한 비유란 말인가. 아랫목은 이 제목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대동제 기간 동안 그 식상한 응원과 식상한 술자리문화에 지친 여학생분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기다렸다. 아랫목은 이 유언물을 각 게시판과 여휴에 붙여놓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아랫목 컴퓨터 신청서가 올라오진 않았을까 확인했다. 그러나 다시 행사는 아랫목의 몫으로 돌아왔다. 물론 예상은 했다. 그렇기에 다시금 바닥을 치고, 상큼하게 뛰어올라 기획단의 알음알음으로 친구들의 사진을 모으고, 기획단이 여행 때 찍어두었던 사진을 꺼내오고, 나누고 싶었던 쪽글을 찾았다. 그리고 이런 영화 같이 보면 어때? 하며 영화를 고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의 아랫목을 강행했다.

행사의 홍보가 중요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아랫목이 각 행사를 진행하기에 벅참이 있었으나, 그래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가 하는 행사는 매우 회기적이며, 분명 이에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을 것이야!' 모든 것은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홍보 포스터는 약 13개의 분량으로 만들어져 선택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었다. 학내 여휴 지도를 만들고, 각 여휴에서 무엇을 진행하는지 써놓았다. 문대에서는 <플루토에서 아침을> <홀라걸즈> <미스리틀선샤인> 영화를 상영하고, 사회대에서는 신청한 여학생분들의 사진을 전시하였다. 법대에서는 기획단의 소중한 여행 사진을 붙여놓았고, 학관은 아랫목이 분노한 <학내 여휴 실태 사진전>으로 채워졌다. 또한 중도는 밤새 자신이 나누고픈 여성주의 쪽글을 찾고, 오리고, 붙이고 하여 긴 줄 사이사이에 배달은 기획단의 열정으로 채워졌다.

사실, 우리는 <오픈 여휴>를 꿈꾼다.

대동제 기간 동안, 우리는 <오픈 여휴>를 열었다가 금세 닫았다. 여휴는 그 공간 자체로 여학생들에게 불편한 학내 공간에 대한 저항이고, 운동이다. 그 여휴를 밖으로 끌어와서 공기놀이 하고, 바람 좀 쐬고, 그림 그리고 놀고, 돛자리 깔고 놀고 싶었다. 그러나 세워놓고자 했던 이젤들이 바람에 쓰러지고, 학내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뒷받침해줄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 '아, 다음에 하면 참 좋겠다.'라며 너털웃음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과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

4월부터 기획한 이 행사는 5월 첫째주 공모 웹자보, 여휴 게시물로 행사 홍보하기, 아랫목 커뮤니티 무한 홍보하기, 이어 둘째주 다섯 곳의 여휴에 다섯 가지 주제 준비하기, 공모 마감, 여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와 유언물 만들기 (그렇다. 우리는 어느 곳에도 의외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디자인으로 A4 색지를 이용한 유언물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주 드디어 당신의 아랫목을 내보이기를 진행한 것이다.赫赫.

당신의 아랫목 행사를 통해 우리는 여휴에선 그 무엇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당신이 오기에, 당신이 함께하기에, 당신이 나누고픈 무엇인가를 풀기에 여휴는 준비되어 있는 곳이며, 곧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진 한 장 남지 않아 더 아쉬운 행사에, 이렇게 글로나마 이 자료집을 보는 '많은 분들과' 이 행사를 공유하고 싶다. (아, 이제 좀 아쉬움이 덜어지려나 후)

별다른 성평등 공간을 만치/며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언니네방2' 책. 요즘 저에게 참 필요한 참고. 너무 고맙구요.
 성평등 주간 맞춰서 시작되 월정덕에 생강하와 대주하 잘 마셨어요^_^
 그리고, 친구한테 선물로 만들어준 월정주기 팔찌!
 만들고보니 너무 예뻐 제가 욕심 났다지요 >_< 최고 좋았어요♡

책♡ 너무 좋았어요~ 히나리나 저랑이 느끼는거예요!
 차도 좋았지만 북에 강 부각이 아쉬웠어요~
 언니방 같은 경우에는 성가 많지. 좋아서
 이룬것은 꽤 많지. 많지. 좋았어요@
 계속함음...ㅋㅋㅋ 감사하루~

이렇게 안 되게...?

- 이빨복 신식지에 달린 리플렛 -
 내남방 시선 해주세요.

p12. 김소와 한 개 더 -
 내남방 (여류 너무 추워요)
 현한 소피 (중도 여류니 상대 여류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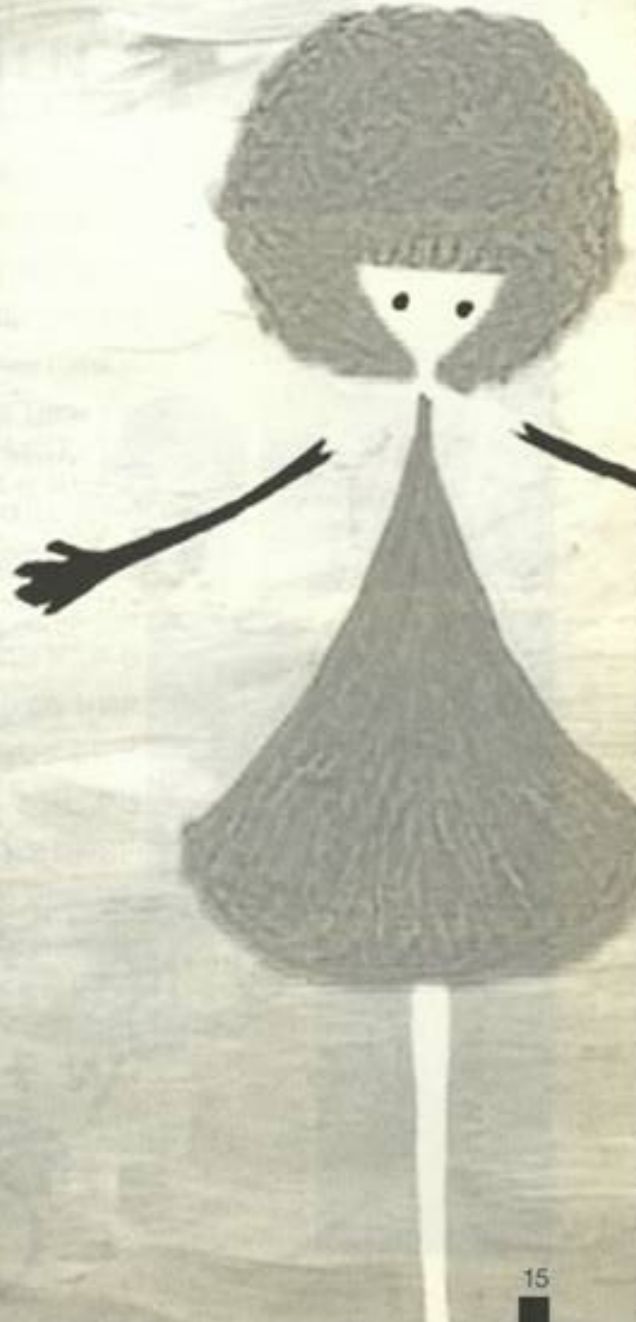
저희나 차를 좀 곁에다닐 수 있었음 좋겠다.
 모기가 너무 많아요
 연세준과 주 대화내용 같은 원본거리 좀
 비치해주시면 좋겠어요. ^^

제발 외출할 여류에 온몸바라 감아주세요.
 (너무 부러 아무도 이왕 안하는 완전 죽은 공간)
 여류 관리자님. 읽어봐요...
 리 전리무름. 읽어봐요...
 그리고 리름름.
 너무 nice way 하다 ~



(공대역. 개선좀 해주세라!!)
 해 너무는 공대역 ㄱ ㄱ

유독음대는 왜 여류가 영음장요?
 여류방 바음이 많아서 멈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면 간혹대는 일갈래.. 서 이상~
 > 생대역에도 영음장...
 생대역





학내 여학생 휴게실 탐방

여러분은 몇 개의 여학생 휴게실에 가보셨나요? 사실 매일 같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어디에 어떤 휴게실이 있는지 한번 구경 가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과대 별로 있다고 하는데 변변한 표시도 없지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또 워낙에 학교가 넓어야죠.

하여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은 여학생 휴게실 중에 광활한 연세대학교 곳곳에 숨어 있는 여학생 휴게실을 찾아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일부 휴게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고 필요한 비품도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운동팀은 이렇게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요구안을 작성하여 2학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지, 운동팀을 꾸려서 요구안씩이나 만든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학내 공간에서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접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내 여학생 휴게실의 실태조사에 2007 여학생 수첩의 <설명하면서, 폭로하고픈 학내 건물 별 장애시설>의 내용을 함께 넣습니다.

안궁금해/시끄러



단과대학 여학생 휴게실

1) 공과대학 여학생휴게실1

제2공학관 복사실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여휴는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에요. '공대에는 여학우가 거의 없다'는 게 어찌된 일인지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 공과대학은 절대적인 여학생의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단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한데다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여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시정되어야 할 휴게실 일순위! 로 꼽혔답니다^^:)

비단 공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휴게실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물품조차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았어요. 청소용구는 물론 쓰레기통이 없거나, 혹은 지나치게 작거나,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쓰레기가 널려있고 테이블 자체가 꽤 낡았네요. 청소는 언제 한건지 청결유지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뽕이예요...



너--무
더러워!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라디에이터입니다. 공대 휴게실에는 이처럼 불필요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비품이 유독 많았어요.



아...
뭔가
어릴게



좀 더 나은

건물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지하1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데, 이곳은 제3공학관의 지하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2층 강의실은 제1공학관 건물 뒤편에 있는 입구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이 건물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환기를 위한 창문은 있지만 스티로폼 등 건물 부자재가 창가에 놓여 있어 창문을 열고 닫기가 힘들었어요. 어디서 분리되었는지 모를 물건들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구요.





여학생휴게실 중 유일하게 '여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문에는 여학생휴게실에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공간이 넓고 테이블, 의자가 많았지만 공간분리가 되지 않아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나의 자는 모습을 공개하고 싶진 않아요.



공기청정기는 고장이 났는지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지하에 위치한 여휴 중 유일하게 비치된 세습기입니다.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습기가 차기 때문에 세습기와 환풍시설이 필요합니다. 설치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2) 문과대학 여학생휴게실

문과대학의 여학생휴게실은 의술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해서 일정 정도 환경 개선을 하였으나 비효율적인 공간운영과 지하실을 연상케 하는 어둡한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고쳐야 할 문제점이 많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으며 경사로 바로 옆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 경사로가 매우 가팔라 비장애인/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고난의 상징인 '골고다 언덕'으로 불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1층과 2층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성별 구분 없이 단 하나씩 있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외01, 외02 강의실에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려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식 강의실이며, 들어가려면 계단을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을 휠체어를 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단 가장 위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술관 4층과 종합관 3층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문대 학생회실 및 반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3) 사회과학대학 여학생휴게실

사회과학대학의 여학생 휴게실은 연희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어요. 공간분리가 되어 있지만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역으로 공간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정문 왼쪽에 있습니다. 4층을 제외한 모든 계단과 복도와 화장실에 점자블록이 있으며, 강의실 문 왼쪽 벽과 손잡이 옆에 점자 안내판이 있습니다. 강의실 문 옆 벽면 150cm 높이에 악시자를 위한 강의실 번호 확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으나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경우 지하1층만 사용 가능합니다.

4) 신과대학 여학생휴게실

신과대학 여학생휴게실은 현재 언더우드 국제학부와 공동으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 위치하여 딱히 낙후된 환경도 아니고 공간 분리도 일정수준 되어 있으나,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기대기대! 신과대학 여학생 휴게실은 현재 과사무실과 협의하여 환경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

건물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술관쪽 뒤편에 있는 신과대 건물까지는 가파른 경사입니다.



여학생 휴게실 중 공간분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공간이 좁고 관리가 되지 않아 매우 지저분하네요. 필요한 비품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창문에 붙어있는 낮은 경고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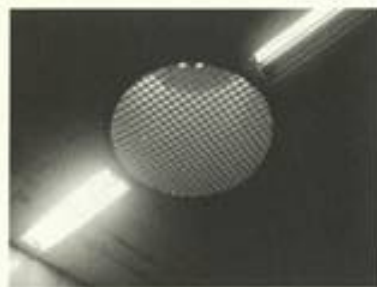
휴게실 안에 있는 두 개의 쓰레기통은, 너무 작아 쓰레기 처리가 어려웠어요. 물론 이곳에서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간분리는 되어 있지만 테이블이 벽에 붙어 있는 등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분해 놓지 않아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한두명 정도 쉴 수 있는 침대가 있고, 실크 소재의 소파가 수면 공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공간 사용에 제약을 주는 비품이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라면 너무 적은 수의 인원만 쉴 수 있지 않았어요?



형광등이 온전히 작동되지 않아 어두웠어요. 통그란 모양의 통로는 환기시설이 아닌 자연채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많은 학생이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는데 환기시설이 전혀 없으니 당연히 냄새가 가득 차 불쾌한 공간이 되었어요.

환풍기는 기본 아냐?

공간도 너무 좁아!



좁은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벽에 붙어서 있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으나 필터 청소 등의 관리는 역시 되고 있지 않더군요.



이과대 학생회에서 만들어 둔 참여 게시판입니다. 여학생우들이 이 현저한 이야기를 적어두었는데, '여휴 좀여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소파와 의자 등의 물품을 좀 더 구비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이 좁은 공간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



휴게실 한 쪽 구석에 비치된 쓰레기통과 청소용구가 휴게실 비품의 전부였어요.

5) 이과대학 여학생휴게실

이과대학의 여학생 휴게실은 과학관 1층 매점(이슬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점 앞에 있다는 공간의 특성상 많은 여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공간분리는 되고 있지만 좁고 어두우며 환기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6) 상경대학 여학생휴게실

상경대학의 여학생 휴게실은 상대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간분리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시설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경대 여휴의 문패는 2001년에 총여학생회에서 만든 것이에요. 벽면에는 게시물들의 붙여진 흔적이 있어 전체적으로 지저분했어요.



남학생들이 안을 들여다본 사건이 있어서 (학) 창문을 빨간 천과 청테이프로 막아두었어요. 아군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요.



비교 문대 여휴의 경우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리고 있어요.



보기 드물게 큰 쓰레기통과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분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유인물 정리함은 관리가 되지 않아 유인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언덕 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입구 주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교실에 접근 용이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 지하2층, 그 외의 홀수층을 운행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면 쉽게 지하1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지하1층과 1층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법대 휴게실의 특징은 수면공간과 학습공간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여학생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소파를 침대형식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모색했다고 하네요. 소파에는 학생회에서 구비해 둔 베개와 담요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비치된 가슴가압니다.
법대 여휴에서는 비품이 자주 분실되며, 침결유지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계시판과 책꽂이가 있으나,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일괄거리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책꽂이에는 개인사물이 놓여져 있네요.



7) 법과대학 여학생휴게실

광복관 지하1층에 위치한 법대 여학생휴게실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수면공간과의 공간분리도 확실히 되어 있고, 여학생들을 위한 비품을 학생회 자체적으로 구비해두기도 한다고 해요.

중앙도서관 오른편, 지하 2층 주차장입구가 경사로로 되어 있으며 입구 바로 앞에 모든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지하2층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혼자서는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법대생의 경우 과사무실에 전용 pass를 신청하면 (장애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물 계단 (백양관 원편)의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있으나 다소 돌아가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으며 광복관 1층 여남 화장실 안에 따로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 공과대학 여학생휴게실2

공과대학의 두 번째 여학생휴게실은 제1공학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휴게실로 최신식의 시설에 기본적으로 깨끗해요. 공간분리도 잘 되어 있으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창문에 깨끗한 블라인드가 쳐져있으며, 벽에는 붙어있는 의자가 있네요. 깔끔한 외양이지만 편안하게 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공대 여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계시판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휴에서는 여성계 관련 행사나, 총여학생회의 소식을 전하는 공간으로 계시판을 이용하고 있지만 공대에는 이러한 공간이 없지요. (사진은 계시판이 따로 없어 벽에 붙여둔 아랫목 소식지)



공간분리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벽 안쪽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바깥쪽에는 벽에 붙어있는 의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의자가 벽에 붙어있어 공간의 활용이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공간이 있을 줄에도 누워서 쉴 수 있는 소파 등의 비품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죠.

건물 정문에 1층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있으며 여기서 모든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있는 강의실과 공대도서관은 정문에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낮은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좌측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뒤송송-
찬데요?



신문 비치대에는 어우것도 놓여있
지 않았어요. (원물거리를 달라)



비교적 청소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
다만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네요.

기타 학내 여학생 휴게실

1) 중앙도서관 여학생휴게실

중앙도서관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내
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네요.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관리나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
니다.

중앙도서관은 여휴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음에
도 불구하고 비품의 수는 단과대학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또한 수면공간과 휴게
공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 공간이 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게시판 역
시 정리가 되지 않아 광고 포스터로 덮여있
네요.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단, 경사
로가 주차장 쪽으로 나있어서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는 장애인 전용
자동문이 있어 도서관 내부에는 손쉽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평상
시 1층과 6층만 운행하며, 엘리베이터 이용
이 필요할 때에는, 1층 컴퓨터실로 들어가서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층별로 움직이는 것
이 매우 불편함에도, 장애인 화장실은 3층에
만 있습니다.

2)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

학생회관 3층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함
계 여학생들이 애용하는 여휴 중 하나예요.
공간분리가 잘 되어 있고 넓은 편이지만 노후
한 시설 등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았어요.
현재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은 총여학생회와 여
학생처와의 논의를 통해 벽 새로 칠하기, 천장 보
수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호! ^^)

건물 뒤쪽으로 가면 1층 로비로 들어갈 수 있
고, 쪽 앞문으로 나가면 부물샘과 고물샘 식
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 지하에
양쪽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입구는
맛나샘 식당과 화장실, 아름다운 샘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입구로는 은행, 우체국,
알뜰샘, 슬기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슬기
샘은 통로가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렵습
니다. 그리고 2층에서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경우 접근이 어렵
습니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
아리실 등 많은 학생 이용 공간과 보건실, 학
생처 등 학내 관리처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비교적 공간 구분이 잘
되어 있으며 소파와 탁
자 역시 효율적으로 배
치되어 있네요(오호호)
지저분한 벽만 빼면 좋
아요 ^^



벽과 새로 칠한 문과대
여휴의 벽면



임 으 먼
말 해 -_-



블라인드는 이미 채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
지, 블라인드의 조절 끈이 마구 엉켜
있었어요.

블라인드가 걸려있는
쪽의 천장이 부서져 건
물의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사고
나면 어쩌려구, 보수
공사가 시급해요!





유일하게 정수기와 텔레비전이 있는 곳이에요. 창문의 블라인드도 새것으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네요.



긴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 쉬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소파의 손잡이 부분이 철재로 되어 있고 사람이 눕기에는 짧은 길이 있어 편안한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아쉬워요.



집지가 비치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여성계의 소식이나, 여성신문 등의 자료들이 있네요. (정수기 좀 아쉬워요)

3) 논지당

교내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세워진 여학생 휴게실입니다. 현재 여성인력개발연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안쪽의 라운지를 여학생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학생 휴게실로, 다른 곳에 비해 깨끗하며 다양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방시간이 오후 5시 30분까지로 이용시간이 매우 짧다는 단점!)

지금까지 학내의 여학생 휴게실을 모두 돌아보았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단과대의 특색만큼이나 다양한 용도로 휴게실이 이용되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족한 점이나 새로 보충되어야 할 여지도 많았어요. 특히 공간 자체가 협소한 휴게실(대표적으로 이과대와 공대, 사회과학대의 경우)이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휴게실의 경우에도 비품 도난 사건 등이 많았다고 하는데, 역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관리되는 공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

이는 아랫목에서 구성하여 중문위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44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로 의결된 <2007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요구안> (여학생 휴게실, 아랫목에 대한 소개와 실태조사가 포함된 문서)의 일부내용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은 학내에서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여학생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재 학내 여학생 휴게실은 학관, 중도, 논지당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단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여휴는 곳곳마다 공간 활용, 갖춰진 시설 등에서 모두 차이가 난다. 가장 기본적으로 통풍, 난방, 냉방이 전혀 안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어둡고 침침한 공간 또한 많다.

여휴는 언제나, 여학생 누구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휴게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 청결한 환경 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복지와 교육권에 가장 많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학생처, 단과대 내에 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관리해야 할 단과대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여휴의 환경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학내에서 여학생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여휴는 지금처럼 방치된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이에 19대 총여학생회와 여휴 환경 개선 운동팀은 학내 여휴 실태 조사와 1학기 동안의 여휴 환경 개선 운동을 바탕으로 여학생 휴게실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인 여학생처, 단과대학 사무실에 대하여 여휴의 시설 확충과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여학생처는 학내 여학생 휴게실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여휴 환경 개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요구안을 각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여휴 환경 개선을 실천하라

하나, 각 단과대 사무실은 학내 여휴의 시설 관리와 확충을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그 관리체계를 학생들에게 공개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여휴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여휴의 환경,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개선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 개선하라.

하나, 여학생처와 각 단과대 사무실은 단과대, 총여학생회와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논의 테이블을 통해 여학생들의 휴게 공간을 보장하라.

문과대학 여학생휴게실 '여휴'는 외솔관 지하에 있다.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계단 건너편에 문이 보이는 곳에 있어 접근도가 좋은 편이다. 문과대학 여학생휴게실 '여휴'라고 적힌 이쁜 문패가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가면 6평정도 되는 정사각형 방이 나온다. 그 곳에는 세면대 1개, 거울 1개, 벤치형식의 소파 4개, 원탁 2개, 의자 8개, 작은 책꽂이 1개, 습기제거장치 1개가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다.

접근도도 좋고, 공간도 (다른 단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는데 비해 사실 문과대 여학생휴게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다. 외솔관 지하의 건물 특징상 여름에는 천장에서 비가 세고, 책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굉장히 습하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한 문과대학의 예산 지원으로 문과대학 여학생휴게실은 모든 단과대 여학생휴게실들이 가치고 있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소파조차 없다.

작년 겨울 44대 문과대학생회를 시작하면서 지하에 있는 여학생휴게실에 내려갔을 때 '여휴'의 상태는 심각했다. 천장에 달린 공기청정기는 고장 났고, 창문은 깨져있고, 여기 저기 음식점 전단지가 널려있고, 의자와 책상은 날부러져 있는 상태였다.

올해 초부터 문과대학 사무실을 찾아가 예산 지원을 부탁하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편안한 소파로 교체해야한다고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분명 학교행정상 여학생휴게실은 각 단과대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는 나몰라라하는 태도였다. 예산이 부족하니 여학생처에 공문을 보내보겠다는 대답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는 문과대 여학생휴게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과대 여학생휴게실의

문과대 여휴 이야기



분명히 행정적으로 관리의 의무는 단과대 사무실에 있지만 대부분의 단과대 사무실에서는 '여'학생휴게실이라는 이유로 관리는 커녕 방치하고 있다.

문제 일 것이다. 학생들의 휴게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학생휴게실을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것이다. 분명히 행정적으로 관리의 의무는 단과대 사무실에서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과대 사무실에서는 그 공간이 '여'학생휴게실이라는 이유로(로 관리)는 커녕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방치되어 곰팡이가 피어있고, 음식점배달어저씨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러한 여학생휴게실에서 누가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을까? 작년부터 일 년 동안 이런 여학생휴게실을 바꾸고,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때가 탄 하얀 벽을 녹색으로 칠하고, 깨진 유리창을 갈고, 아늑해 보이는 커튼을 달고, 주기적으로 습기제거장치를 가동시키고, 방향제를 설치하고, 타이레놀 등의 비상약들을 가져다 놓았다. 예산이 없어 계획하고 있던 가구 교체, 냉난방기 설치하는 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식탁해보이고, 차가웠던 공간이 제법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모든 공간이 그렇겠지만, 특히 여학생휴게실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현재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학생 휴게실의 내부 환경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 휴게실이 학생들의 자치공간인 만큼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역시 이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by 해랑

신과대는 2005년 2학기부터 광복관과 외솔관 사이에 새로 생긴 신학관(연합신학대학원)으로 옮겨졌다.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에 '여학생휴게실(여휴)'의 공간이 따로 배정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정보다 공간이 부족하자 신대 측에서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었다. 학생회 측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수님과 신대 사무실, 학생들과의 여러 차례의 대화를 거쳐 여휴는 다시 제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신과대 여휴는 제대로 사용될 수 없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휴의 위치에 있다. 신과대 여휴는 현재 UIC(언더우드 국제학부)가 사용하는 공간의 끝 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신과대의 수업이 전혀 없는 UIC의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도 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신과대 여학생들이 많다. 또한 위치를 아는 학생들은 여휴를 가려면 UIC가 사용하는 공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물론 여휴는 UIC와 신과대 여학생들 모두가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신과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위치상 불편한 점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사무실이 관리하기로 되어있는 여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어려웠기에 '휴게실'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딱딱한 책상과 의자들로 여휴의 공간을 채웠다. 사무실에 건의를 했지만, 사무용품 이외의 편의시설(침대나 소파)은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이 공간은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석에 위치하여 나중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여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관리해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과대 여휴는 생긴 이후 너무 방치되어있었던 것이다.

제2대 신과대 여학생회는 여휴의 활성화 방안

신과대 여휴 이야기

비록 여휴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공간이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일단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에(07-1) 교수님들과 지하 1층 로비 쪽에 있는 강사실과 위치를 바꾸는 것에 합의를 보아 방학 중에 공간을 옮기는 것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방학 중에 신과대 부학장님이 바뀌는 등의 일이 있고나서 결정이 번복되었다. 대신 열악한 여휴의 공간을 함께 개선해주고 물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벽지를 바꾸고, 계사판과 소파, 파티션 등이 배치되었으며, 조명 설치의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여휴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여휴라는 공간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9월 초에 여휴에서 파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시도 하고 있다.

여휴에 관한 사업을 하며 아쉬웠던 점은 교수님들이나 사무실 측에서 학생들의 공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여휴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공간이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리하는 측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그 공간을 없애기로 결정했던 점, 위치를 바꾸기로 결정했던 것을 취소해버리는 등의 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신과대 여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치를 모든 학생들이 가까이 하기 쉬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신대 여휴는 아직 비품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대 여학생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필요한 비품 지원과 섬이 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by 소라



법과대학 여휴 이야기

법과대학 성평등주간 여휴 행사



→ 국외에서 페스티벌과 성평등주간 행사 포스터입니다. 공백한 곳곳에 붙어있답니다.

법과대학에서는 법과대학과 법대학생회, 성평등주간기획단의 주최로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성평등주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대 학우들을 대상으로 기획단을 꾸려 1.자기방어술강연, 2.여성폭력강의, 3.천연화장품 만들기 4.영화제 상영 등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를 기획하였는데요, 행사의 일환으로 여학생 휴게실에서 각종 전시회를 했지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월경통에 좋은 차

차니누기 행사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이후에도 꼭 비치해 두기로 했어요 ^ _ ^ 따뜻한 치마시는 여휴, 좋죠? ^^ 법대 여휴에 치마시러 오세요!



→ 월경통에 좋은 차입니다. 세부 설명과 함께 나누기, 성강치를 비치했지요. 통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통제를 먹는건 좋지 않죠!



→ 몇몇시간 후에 거보니 일찍 일할 바깥에요. >_<



→ 행사기간 후에는 소한 식으로 비치해두려구요. ^^ 여성주의 도서 외에 다른 재미난 책들도 찾아두면 읽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 여성주의의 관련 도서를 구비하여 작은 대여공간을 꾸미고요. 페미니즘의 도전과 안-내 발 등 흥미진진한 여성주의 도서를 구입했어요. 대여료를 보니 벌써 많은 분들이 빌려갔네요? ^^ 자율대여라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꼭 가져가더라도 즐겁게 읽는다면 의미있는 일이지요?

2. 여성주의 도서 대여

여성주의는 결코 난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여성주의를 찾아보는 작업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3. 대안 달거리대 전시

몸에도, 환경에도 독이 되는 일회용 생리대, 아직도 의심없이 쓰시나요? 굳이 탐폰의 독성쇼크증후군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 일회용 생리대 역시 환경호르몬이 들푹 담겨있다고 해요. 편리함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번거로움이나, 눈에 보이는 깔끔함이나 건강이나, 지구 평화를 위해 이 한몫 헌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상의 작은 실천,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안 달거리대를 나눠드리
는 행사도 같이 진행하였습
니다.
한번 써보고는 실은에 알람
아지는 분들을 위해, 화장자
에 한해 대안달거리대를 나눠
드렸어요.
(특별히 예쁜 무늬로 주문했
답니다!)



4.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월경주기팔찌를 만들어 보면서 여성의 몸에 대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았어
요^_^ 적당한 크기의 구슬을 구하느라 고생하
긴 했지만 예쁘게 만들어진 팔찌를 보니까 뿌듯
한데요!!

STAFF 월경주기 팔찌를 만
들어 보았어 ~ 네
근데, 어떻게 만드는거지
~?



5. 문화 게시판

여휴기획단에서 생각했었던 게시판을 한번 꾸며
보았어요-^ ^ 문화라는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
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스크랩해두고, 보는 사람
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메모란을 따로 만
들어 두었어요. 일회성 게시판에 그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때 의미
있는 게시판이 될 것 같아요. ^ _ ^

6. 그 밖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까요?

- ① 자기방어술강연
- ② 법과 성성폭력운동이 만나다
- ③ 립밤 만들기
- ④ on-line 토론장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 ^ 비록 아주 많은 사
람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때문에 오히려 옹기
종기 편안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 휴게실에서 했던 행사는 색다른 기
획으로, 참신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
니다!)

여휴를 단순히 휴식의 공간으로만 생각했었던
분이라면 이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
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지러오는 곳을 넘어 우리
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문
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여휴, 어때요, 생
각만으로도 즐거워지지 않나요? ^ ^

♡완전소중 법대여휴♡

법과대학 여학생 휴게실의 수면공간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성평등주간(11월 둘째주) 동안 휴게실 벽면에 부착해 놓았던 스티커 설문 결과, 과반수의 이용자들이 '수면공간이 불편하며 매트리스로 대체하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실 여학생 휴게실의 수면 공간에는 그동안 긴 의자(소파)가 놓여 있었는데요(이는 다른 휴게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길이가 어정쩡하고 팔걸이대의 높이도 높아 수면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자면 목 디스크의 위험이 T_T)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여휴환경개선운동팀에서 명문화한 시설 개선의 루트를 통해 법과대학 과사무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단과대 학생회 주체의 민원접수(설문조사)와 실사조사(문서화)]→과사무실과의 논의→실제 환경개선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새롭게 비치한 일부 비품의 경우에는 학생회비에서 충당하였구요.

그럼 법대 수면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오랫동안 방치되어있었던 게시판에는 이런저런 게시물이 가득합니다.

서랍과 서가대가 있지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편의자가 침대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서 사용할 수 없어서 배는 아파고 누워 사용하는 휴게실 배개로 인해보이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콘센트는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Before...



...after



오랫동안 방치되어있었던 게시판에는 이런저런 게시물이 가득합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서가대를 신발장으로 활용했어요. 입구에는 주임교수와 수면공간 이용수칙을 붙여놓았습니다.

소품을 최소화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신발이 차지할 도록 변형할 수 있는 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침대로 된 매트리스로 교체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학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천드림방치용 받침대까지 제작하여, 머리맡에 놓으면 베개도 보이네요!

침대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여 복신한 소파 하나정도 남겨두는 센스(너머지 의자는 밖으로 빼두었어요 ^^)

그 밖의 변화

복도에는 옷 구김을 방지하기 위해 옷걸이대를 비치해 두기로 했습니다.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읽기 쉬운 여성주의 도서도 구비해두었구요. 사진으로 담아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부 구조도 유기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매우 쉬웠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여휴가 방기되고 있으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떠남기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의 벽을 넘어 여휴가 진짜 여학우들의 쉼터가 되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애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갈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자마 시스터즈(송실대 여학생들의 모임)와 함께한 이야기 한 공기

송실대학교

참여자
*이연희, 미리, 우주
*파자마 시스터즈(PS), 사이, 소윤, 시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송실대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창 여휴 환경 개선 운동을 하고 있었던지라 어쩌나 관심이 가던지, 다른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힘을 짜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시간은 흘러 흘러 가고, 아랫목의 활동을 자료집으로 정리해보고, 모아보자는 의견이 나올쯤에야 송실대 여휴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생각났다. 학생회관 3층에 위치한 송실대 여휴에서 송실대 여휴 관리 위원회 <파자마 시스터즈>, 그녀들과 함께 여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간략한 자기소개와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윤—저는 소윤이라고 해요. 파자마 시스터즈를 통해 학내 여성주의 운동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시로—저는 시로예요. 파자마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한지는 얼마 안됐어요.

사이—저는 사이구요. 파자마 시스터즈는 총여학생회 페미니즘 페스티벌로 알게 되었어요.

파자마 시스터즈는 어떻게 결성된 것인가요?

소윤—03년도 2학기에 총여가 아닌 자치단체 여학생 모임이 여휴를 직접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쁜 이름을 지어보자 해서 나왔던 이름들이 '이부자리' 같은 거였어요. 워낙 온돌방 이용률 높다 보니까, 거기서 놓고 있는 '파자마 시스터즈(이하 PS)' 어떨까란 생각을 했어요. PS는 '여학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을 꿈꾸는 단체예요.

우주—처음 결성했을 때는 총여에서 모집한건가요?

소윤—총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을 해서 여휴 위원회를 모집하게 됐어요.

우주—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소윤—수시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세 분은 어떻게 파자마 시스터즈를 하게 되었나요?

사이—06년에 총여 활동에 참여했어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어요. 총여가 없어지고, '과연 여휴에서 뭘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 게 많았지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고 여학우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PS를 하고 있는거예요.

시로—올해부터 활동했어요. 활성화된 모집이 아니라 음알음으로 들어왔죠. (PS를)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관심이 있어도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06년 겨울에 세미나를 함께 하던 소윤이 제안을 했어요. 목적의식이 있어서 덤뻤다기보다는 알면서, 친해지면서 들어오게 됐죠.

지금 같은 여휴의 모습은 어떻게 갖추게 된 것인가요?

소윤—처음에는 매우 작았대요. 한 때는 침대, TV, 소파가 있었다는 전설도 있고.

사이—동아리 방이 없어지면서 벽을 뚫고, 공간이 생겼어요.

소윤—이 공간은 03년에 생겼어요. 학교에 여휴 리모델링을 요구해서 그해 3월에 재개장식을 가했죠. 참여한 사람들은 모르겠고, 박을 들렸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여휴는 90년대 초중반부터 있었고 총여가 관리를 했다고 해요. 크기는 작았대요. 공간 분할이 안 되어 있었고, 여휴가 단대별로 있지도 않았구요.

소윤—저희 여학생이 12,000명으로 삼분의 일이 넘는데 여휴는 하나 밖에 없어요. 단대 여휴는 생길 기미도 없고, 생긴다 해도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요.

성폭력 신고함은 원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성폭력 상담실로 연결되나요?

소윤—총여에서 성폭력 활동을 하면서 설치되었어요. 지금은 신고함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렇게 버려져 있어요. 대신 날작이가 5개 정도 있죠.



여휴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어떤 공간인지 설명해주세요.

사이 온돌방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에 밤샘 때 가장 많이 이용해요. 밤새 공부하다 졸리면 자는 용도로 이용하는 거죠. 편하게 친구들이랑 수다 떨 수도 있고요. 답배 피는 친구들은 답배방에서 편하게 답배를 피요. 영화방은 처음엔 상주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다가 지금은 빌려가는 사람들이 묵묵 적고 빌려가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미리 온돌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윤 온돌방에는 온돌 판넬이 깔려 있어요. 여학생들이 몸을 지지고 가죠. 1층, 2층으로 된 판넬에 이불을 깔아서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답배방은 환기가 안돼서 문제예요. 환풍기를 달아주기로 한 회사가 있었는데 건물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못 달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창문 열어 놓고 피죠. 지진 메이크업 바예요. 머리 피는 애들도 있어요. 화장도 하고.



소윤 책꽂이에는 행사 활동 했던 자료집을 두고 있어요. 안 쓰는 전공책도 가져다 놔는데 지금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없고요. 이 포스터는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휴엔 이상한 것만 갖다 놓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웃음) DVD도 여성주의적인 것들이에요. 항상 이 공간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03년도 활동할 때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게시물들을 붙였어요.



여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소윤 시간표를 나눠서 상주했어요.

우주 그러면 사람이 부족해서 상주하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소윤 한명씩 돌아가면서 있기로 했었는데 공간의 안정성 문제가 거론됐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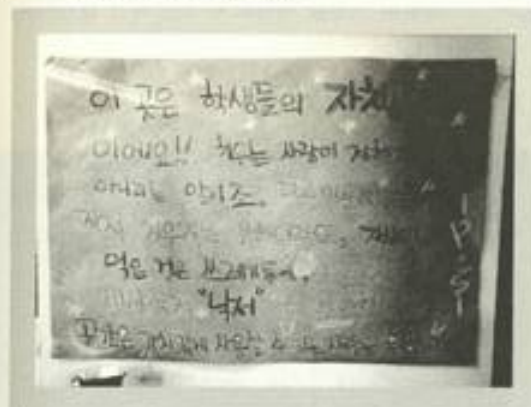
우주 항상 24시간 개방하나요?

소윤 보통 아침 7시에 열어서 10시 반에 닫아요.

우주 여휴에서 청소도 하시고 영화방 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소윤 고생하고 있죠.

사이 답배방 청소가 힘들어요.



파자마 시스터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소윤 정기적으로 영화제를 해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로키 호러 픽처 쇼' 같은걸 틀었죠. 그때 당시 다섯 명이 와서 한 사람씩 추천해서 봤어요. 남자들이든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주 연세대에선 축제 때 사진전도 하고, 영화상영도 했어요. 나름 클랑도 걸었는데 1명 오고(잠깐 눈을 좀 닫고). 대실패였죠. '오픈 여휴'라는 것도 했었어요.

소윤 우리도 했어요. 우리도 대실패였죠. 일전에 총여에서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여휴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밖으로 나가자!'고 했었죠. '달팽이 살롱'이란 이름으로 축제기간 내내 오픈여휴를 했어요. '달팽이는 집이 필요해' 이런 구호로.

우주 이런 활동들은 언제 하신거죠?

소윤 04년도 가을 대동계 때 페미니즘 페스티벌에서 했어요. 총여에서 기획하고 여휴 이름으로 참여를 했죠.

레인보우 레인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이진 무지개를 테마로 일 년 동안 일곱 가지 색의 파티를 하자는 거였어요. 어머머했죠. 기획을 했을 땐 다들 지지해줬지만 결국 다 못 했어요. 처음에는 보라색으로, 가면 파티를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셀로판지 조명으로 보라색 실내, 보라색 바를 만들었죠. 다이어트 스트레스 안받는 약 같은 것도 있었구요.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미리 너무 재밌었겠어요.

사이 노래는 나오는데 아무도 춤은 안 추더라고요. (웃음)

파자마 시스터즈가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여학우 문화란 뭔가요?

소윤 술과 연애가 주가 되는 소위 대학생 문화라는게 의외로 포괄적이거나 다양하지 않고,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이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닌, 대안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사도 학내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는 방향으로 기획했구요. 처음엔 여학생들이라는 감수성만으로도 재미있는 문화에 대해 생각했었죠. 수다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03년도 개장행사를 시작으로 PS의 슬로건을 '여하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정했어요. 이후 여하우 문화를 실현해보자란 생각으로 요가를 배우는 행사를 했는데 3명밖에 안왔죠.

우주 — 항상 참가는 적은 것 같아요.

소윤 — 그래서 04년도 개장파티를 획기적으로 교복 파티를 했어요. 송실대는 만우절에 교복 입는 문화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좀 걱정을 했는데 여휴가 꽤 잘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매년 행사는 중 고등학교 때 먹던 비빔밥 만들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진으로 장식도 하고, 예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엽서를 비치했어요. 공기놀이도 하고 단체 사진도 찍고.

우주, 미리 — 완전 재미있었겠다!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즐거웠던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시로 — 개인적으로 너무 바쁠 때, 마음이 조금해서 많이 참아주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사이 — 생각한 건 많은데,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좋았던 건 학과생활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만나면 다 취업 이야기고, 그런데 소윤이나 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좋았어요.

소윤 — 그거 문제야. 여휴 때문에 만나서 댄날 자기 이야기 하고 (일동 웃음)

저는 아쉬운 걸 다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가 걱정이예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날 어떻게 기억할까, 여휴를 어떻게 기억할까, 난 생각을 가끔 해요. 공간만

남아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공간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내가 여기에 더 있었으면—하는 생각을 해요. 세 명이 여휴에 대해 이야기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못했던 이야기기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송실대 여휴에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소윤 — 애들끼리 인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오는 애들은 분명히 서로 얼굴을 알 텐데 쿨을 나눠먹는 다든지... (웃음)

시로 — 분리수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도 좀 치우고 갔으면 좋겠구요.

미리 — 여휴에 바라는 것도 바라는 거지만, 학교에서 땀땀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윤 — 학교의 지원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민이에요.

인터뷰를 마치며, PS는 아랫목의 자료집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활동과 고민을 모은 자료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그 활동에 대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송실대 여휴를 둘러보고, PS의 활동과 그 방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아랫목이 얼마나 감탄하며, 얼마나 여휴에 대한 사방사방 풍종 각자의 꿈을 또다시 꾸었는지 모른다. 여휴, 그 공간에 대해 꿈꾸는 일은 가끔은 고단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상상력이 언제나 그 고단함을 넘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

한양대학교

내게 완전 소중한 공간, 여학생 휴게실 ♡

by 소윤

한양대학교는 한양남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학생 수에 비해 남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면 여학생이 학교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학생을 더 잘 챙겨주려는 곳이 바로 우리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양대 여학생들의 완전 소중한 공간인 여학생 휴게실인데 새내기 때 처음 이 곳을 방문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나는 여학생 휴게실을 완전 애용하고 있는 중이다. 한 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 힘든 중독성을 가진 여학생 휴게실, 특히 수면실은 쉬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면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한 곳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강한 의지를 저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것도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듯.]

간단히 구조를 설명하자면, 여학생 휴게실은 스무 명 이상이 동시에 누울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쉴 수 있는 수면실과 열 대의 컴퓨터와 두 대의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는 PC실, [중도 PC실이나 단체 PC실에 사람이 꽤 차 있을 때면 항상 이 곳을 편하게 이용했다.] 그리고 보라색의 예쁜 소파들과 원탁 테이블이 놓여있는 메인 휴게실과 불투명 유리 칸막이가 되어있는 회의실로 구성되어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면실은 바닥이 정말 뜨끈뜨끈해서 생리통으로 괴로울 때 이용하면 천국이 따로 없는 공간이다. 또 생리통 뿐 아니라 과제로 밤





을 새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을 때 공간을 이용해 쉼을 잘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 가지 주의 사항은 깊게 잠이 들면 모든 수업 다 날리고 저녁까지 잠을 자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니 알람은 필수로 맞춰놓아야 한다. 그리고 여학생 휴게실이 소중한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고 일어나서 놀리고 부시시해진 머리와 개기름으로 얼룩진 얼굴로 밖에 나와 복도를 지나쳐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애매하게 얼굴만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상관없으나 애매하게 얼굴만 아는 사람을 이런 상태로 만나는 것은 정말 싫다] 혹은 마음 속에 품어둔 그 이를 만날 것을 방지해 수면실 바로 앞에 파워더룸이 있다는 사실이다. 엄청 큰 거울과 센스 있는 긴 선반, 세면대, 그리고 나갈 때 마지막으로 앞 뒤 모습 다 체크하라고 전신거울이 준비되어 있어 수면실을 나설 때 보다 '벌췌한' 모습으로 나오게 도와주고 있다.

또한 메인 휴게실에는 여성주의와 관련된 여러 책과 잡지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린X무스나 파페포X 메모리즈 같은 아기자기한 책 역시 준비되어 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 바꾼 보라색 폭신한 소파 [너무 내 취향 소파다. 나중에 집 사면 이런 소파 사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소 아이템이다.] 에 누워 책을 읽거나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면 이런 공간이 없으면 딱딱한 학교생활 어찌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이다. 그리고 원탁 테이블에서는 개인 공부를 하거나 함께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만 사실 나는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직 이 공간을 '쉴' 때만 이용하고 있다. 쉬는 곳은 쉴 때만 이용한다! 는 목적의식이 아주 투철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스터디 공간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곧 졸업하므로 pass~.



지금까지 학생회관 4층에 있는 여학생 휴게실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는 여학생 휴게실이 몇 몇 단대에 더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는 각 단대마다 여학생 휴게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분노게이지가 급상승하기도 했었다. 이런 소중한 여학생 휴게실을 졸업하면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연대 여학생 휴게실의 발전을 위해 4년간 여학생 휴게실을 애용한 경험을 살려 짧게나마 글을 써보았다. 연대 여학생 휴게실도 연대 여학생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인다.



여러분, 학사포털에 가보셨나요? 생리결석계 소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월경.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런지 월경이란 얘기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도록 학습 받아 왔습니다. 생리대를 빌릴 때 '너, 그거 있어?'라고 속삭여 물어야 하거나, 생리로 인해 아플 때도 그냥 배가 아프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월경이 존중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월경은 한 생명의 재생산을 담당하기 위한 '소중한 것'이라는 '모성보호' 담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월경은 단지 '재생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성보호' 담론은 단순히 여성은 모성이라는 고정관념아래, 모든 여성을 '예비엄마'로 상정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 재생산 여부의 결정권을 빼앗으며, 권리가 아닌 또 다른 의무만을 부가시킵니다. 모성보호 담론에서 집중하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은 월경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험에 가부장제의 잣대를 들이대어선 안 됩니다. '재생산을 위한 월경'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 아닌, 숨겨야 할 것이 아닌堂堂하게 말해야 할 여성의 경험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월경에 대한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총여학생회에서 생리결석계의 공식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2학기, 생리결석계가 공식제도화 되었습니다. 2006년 2학기에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리결석계 시범운영을 하던 것과 달리, 이번 공식제도화를 통해 학사포털 사이트에서 생리결석계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사포털에 가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클릭해보세요 ^-^

생리결석계 사용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첫째 portal.yonsei.ac.kr로 로그인

학사관리(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클릭!



연세대학교 학사포털서비스

로그인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사
기밀정보관리

로그인

1 학사포털

학사포털 - 학사관리(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 학사관리 - 학사관리

학사관리 - 학사관리(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 학사관리 - 학사관리

학사관리 - 학사관리(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 학사관리 - 학사관리

학사관리 - 학사관리(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 학사관리 - 학사관리

둘째 학사관리 메뉴가 뜨면 교과/수강 클릭클릭 :D

연세대학교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

로그인을 합니다

셋째 드디어 생리결석계 신청 페이지가 보여요~!

시작일자 밑에 있는 파란색 네모를 클릭하면 달력이 뜹니다.

자신이 생리로 인해 결석했던 일자를 클릭하면

시작일자에 날짜가 써지고, 기간을 체크합니다.

최대 2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입력했다면 신청 버튼을 푸욱 눌러주세요 :D

신청하기

로그아웃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프린트를 누르면 끝!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세요.

여학생을 위한 학내 공간

총여학생회

위치_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연락처_ 02)2123-3645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사회구조적 권력 구조와 이에 따른 억압에 따른 관계로 이뤄진 대학 문화를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여성주의 관련 사업(여성주의학교, 세미나, 여성주의 문화제)을 기획·진행하며, 연세 여성자치도서관 「페미니리」를 운영하고 있다. (19대 총여학생회 소개 참고)

성폭력상담실

위치_ 학생회관 205호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홈페이지_ <http://yonsei.ac.kr/~helper>

연락처_ 02)2123-2118

e-mail_ helper@yonsei.ac.kr

성폭력 상담실은 성폭력 신고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곳. 성폭력 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다.

여학생처

위치_ 학생회관 206호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성폭력 상담실 바로 옆)

e-mail_ women@yonsei.ac.kr

여학생불편신고전화_ 02)2123-4118

여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강연을 주최하고, 여학생들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여학생 휴게실 등의 시설 문의도 할 수 있고, 여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학생처 내 성폭력상담실을 두고 교내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논지당

위치_ 신과대학과 성암관 사이 1층의 독립된 건물(본관 오른쪽)

이용시간_ 09:00~17:30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세미나실, 여학생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세미나실: 열린 공간으로 예약을 할 경우 세미나, 강연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약: 여학생처 02)2123-2136)
수유실: 101호에는 학내 유일의 수유공간인 사랑샘이 있다. 온돌식 난방시설이며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비품이 구비되어 있다.

학내여학생어디있나? 찾아보기 지도



참고 : 2007 여학생 수첩, <http://ywnet.yonsei.ac.kr/>



너, 나 그리고 우리의 여학생휴게실

참여자:
레이, 맹, 미리, 베이, 우주

1년 동안의 아랫목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여학생 휴게실 기획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동안 활동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 서운했던 일들, 즐겁고 기뻐했던 일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남들에게는 길게 느껴지는 1년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아랫목 기획단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짧은 1년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지도 모르겠다. 수다의 안주로 매운 해물 떡볶이가 나오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여휴, 넌 어떻게 생각해?

우주—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우선 활동 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해볼까?

맹—응, 평가도 해보자.

레이—간단하게 우리끼리 즐거웠던 행사였던 것 같아. 하지만 여러 이야기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고.

우주—승실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 승실대 여휴는 한 곳이지만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 하지만 각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비슷했어. 주최측의 행사로 끝난 느낌. 그래도 거긴 '레인보우 레인 프로젝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행사들도 있었어.

미리—그러고 보면 여학생들은 여휴를 '뭔가 하는 공간'이 아닌 단순한 쉬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아랫목 활동을 하기 전까진 그랬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커. 우리가 <오른 여휴> 같은 활동을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느냐는 생각. 실제로 여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베이—누군가 이 공간에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은 잘 모르잖아. 바로 이런 점들이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 같아. '이게 기획된 사업이다',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래야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미리—그런데 혹시 원하지 않는데 하는 거면 어찌지? 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

우주—그렇까?

베이—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휴라는 공간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은 필요한거라고 생각해.

맹—그리고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공

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레이—정말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하는 활동일까?

베이—하지만 없으면 손해로 와 닿는 것들도 있잖아.

레이—여휴 환경 개선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여휴의 본래 설립취지가 남성중심적인 공간에서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임을 생각 해 봤을 때, 사람들의 요구는 오히려 여휴의 본래 취지를 깎아내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깨끗하고 예쁜 여휴만을 위한 운동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주—하지만 계속 의심하게 돼. 물론 아랫목의 기본 입장은 뚜렷했지만 다른 여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의심이 들어, 피드백이 없었다는 지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오는 사람만 여휴에 오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여휴에만 홍보한 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참여하지 않지 않을까? 아랫목 기획단이 '다른'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집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승실대처럼 여휴가 하나였으면 어땠을까?

미리—큰 거 하나만 있는 게 행사하기엔 좋겠지. 하지만 그건 정말 기획단의 입장인 듯.

맹—학교가 얼마나 넓은데 큰 거 하나면 불편하지.

우주—단대별로 있으니까 초기에 단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뿔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 한 집단에서 모든 여휴를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어.

레이—단과대 학생회와의 지속적인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우주—법대만 잘됐지. 맹이 와서 ㅋㅋ

아랫목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맹—이전 학생회를 하면서 관리하는 거 보고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하게 됐지.

미리—나는 사실 다른 기획단에 있다가 우주가 꼬였지.

우주—내가 미리한테 매일 보냈지. 레이는?

레이—난 자발적이었지. (웃음)

우주—레이는 무슨 생각으로 하게 된 거야?

레이—여휴를 '문화공간화'한 생각에 반했던 것 같아. 그 때까지는 여휴란 그저 자러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행사를 통해 기운 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신나고 좋았어.



우리 외로웠어요. 훌쩍

미리—승실대처럼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듯.

우주—당신의 아랫목도 좋았잖아!

미리—좋았어! 사람이 많았으면 더 좋았겠지.

베이—1학기 중 가장 기억나는 건 각 단과대 별로 특성을 생각해서 가장 어울리는 행사를 기획했던 거야. 문과대는 어두우니까 영화관처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공간을 해석하면서 행사를 기획했었지.

미리—우리만의 행사로 그쳤던 게 너무 아쉬워

레이—아무도 안오고... 아무도 안와서 외로웠어 (눈물 흘림)

베이—원인은 홍보인가?

레이—홍보가 많이 부족했지.

미리—내 생각엔 우리 행사가 여학생들에게 별로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아. 차라리 이불 한 장 더 놓았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고 '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텐데.



우주—나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했으면 좋겠어. 단대 학생회에 이런 말이 안 들어가는 게 속상해. 단순한 휴게실로 생각하는 것도 참 안타까워. 이불하나 마련한다고 해도 '운동팀-단과대 학생회-과사무실'에 이르는 자난한 과정들을 여학우들이 모르니깐 그것도 아쉽고, 나중에 운동팀 얘기할 때 '그 때 뒤흔었는데?'라고 할까봐 슬퍼진다. ㅋ

미리—여학우들이 소식지 받아보면 '이런거 했었어?'함 듯. (단채로 눈물을 쏟음, 흐엉.)

맹—하지만 가시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같이 (갑자기 불끈) 맞아 맞아!

지금 필요한 건 뭐?

베이—학내 여성주의 운동은 너무 힘들어. 일단 사람들이 줄어들잖아. 활동가도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해. 홍보나 마케팅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봐. 지칠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주—누군가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행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듯 해. 각자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성공적일거야. 판을 깔아놓는 것, 같이 판을 만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 우리가 판을 벌이기보다는, 여휴에서 가능한 일들을 알리고 개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

나에게 아랫목이란? 다섯자 토크

우주—너희와만남

맹—따뜻한수다

레이—이어달리기! 한참 생각 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어. 여학생들이 '여휴 문화재 할 때 안됐다'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랫목 행사도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 정도로 바쁜 터치하며 나갔으면 좋겠어.

미리—우리또만나

다같이—오우~ 좋은데(웃음)

일년 간 아랫목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상상을 하며, 여휴를 색다르고 따뜻하게 바꿔보고자 했다. 개개인에게 그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서로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년을 보낼 수 있었다. 비록 올해로 활동이 마무리되어 시한부 인생을 산 듯한 느낌이 들지만^^; 여휴를 이용하는 누군가가 새롭게 여학생휴게실 운동팀을 만들어 여휴의 또 다른 모습을 꿈꾸길 바란다.

여휴단상

생각했다. 1년을 버려 같이 하지 못하 채 남은 밤은
은 시간으로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
는지 고민되었다. 하루 종일 쓰는 것일까? 라는 고민
에서부터 시작되어 휴일을 전후로, 어떻게 드로잉하
며 이 글을 써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
지는... 그리고서야 나는 어느 때 물려진 기억을 2
년 전으로 거슬러 본래 할 수 있었다.

대학이 되고 컴퓨터 속 강의실을 돌아다니는 등
안에도 여휴단상 휴게실이라 여휴단상 휴게실은 내가 다
른 세계인 것이었다. 내가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휴게실은 여휴단상 휴게실은 내가 다
른 세계인 것이었다. 내가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여휴단상 휴게
실도 학교에 휴게 공간이라는 것은 없었다. 이
것이 여휴단상을 위한 휴게 공간이 과연 있었
었을까. 때문에 당시대부터는 여휴단상 휴게
실은 물론이요 휴게 공간, 나는 지내 집을 먹고 여
휴단상 휴게 공간의 기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휴단상 휴게 공간의 기능이라
고 했지만, 솔직히 내가 여휴단상 휴게
실은 없었다.
휴게실은 모든 단상에 여휴
단상 휴게 공간이
있었다.

그때부터 휴게실은 매우 중요했고, 휴게 공간
기어코 휴게 공간이 되었다. 지내에 휴게 공간
을 잘라 한가히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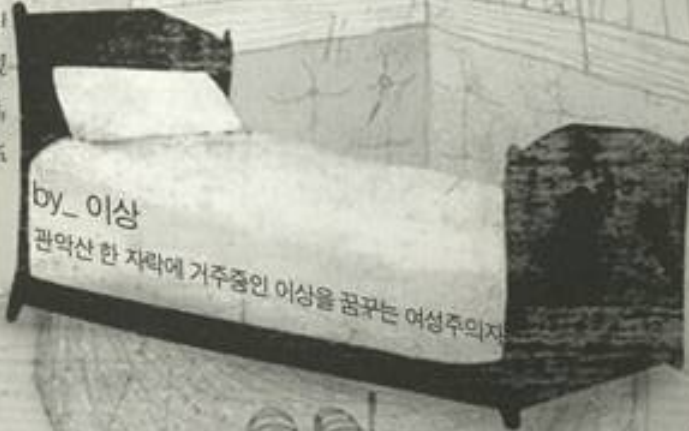
여휴단상 휴게실은, 여휴단상 휴게실은 휴게 공간
기어코 휴게 공간이 되었다. 지내에 휴게 공간
을 잘라 한가히 느껴졌다. 여휴단상 휴게실은, 여휴단상 휴게실은 휴게 공간
기어코 휴게 공간이 되었다. 지내에 휴게 공간
을 잘라 한가히 느껴졌다.

시작이었는데는 시작, 휴게실은 휴게 공간
기어코 휴게 공간이 되었다. 지내에 휴게 공간
을 잘라 한가히 느껴졌다.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휴단상 휴게
실은 '휴게'라는 단어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숙종적이고 도주적이라
는 느낌을 받아 한 이렇듯하는 감정이, 일관적인 환경에 비추어
는 때 적절하다는 단상이 들어가서 느껴졌다는 것은
이 전방인 것일까. 모든 단상이 여휴단상 휴게실이라
한다는 것은 지내에 휴게 공간이, 단상이 지내에
있 것이다. 휴게 공간 단상에 휴게 공간을 이용해서, 휴게 공간
은 지내에 휴게 공간이, 휴게 공간은 지내에 휴게 공간
이 있다. 휴게 공간 단상에 휴게 공간을 이용해서, 휴게 공간
은 지내에 휴게 공간이, 휴게 공간은 지내에 휴게 공간
이 있다. 휴게 공간 단상에 휴게 공간을 이용해서, 휴게 공간
은 지내에 휴게 공간이, 휴게 공간은 지내에 휴게 공간
이 있다.

여휴단상 휴게실은 여휴단상 휴게실은 여휴단상 휴게실
이 지내에 휴게 공간이, 휴게 공간은 지내에 휴게 공간
이 있다. 휴게 공간 단상에 휴게 공간을 이용해서, 휴게 공간
은 지내에 휴게 공간이, 휴게 공간은 지내에 휴게 공간
이 있다.





아랫목 후기

우주: 이번 자료집이 나올수 있다면(지금도 의심하고 있다) 그건 순전히 맹과 레이와 미리의 열의 덕분일 것이다. 배포를 한다면, 학내 곳곳에 과방동아리방 곳곳까지 이 자료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거다. 선거철인 이때가 되면 한 번 나왔다 들어가는 여휴 환경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더이상 실질적인 노력도 없이 떠돌지 않았으면 한다. 일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정작 일상에선 이야기되지 못하고, 학내 구성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라고 하는 선거철에만 등장했다가 쏙 들어가버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너무 크다(제다가 자료집이 한창 마감중인 지금이 선거철이니)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휴는 그냥 두기에 아까운 공간이다. 여학생들이 모이는 공간, 그곳이 언제나 축제로 가득한 공간으로 느껴졌을 좋겠다. 아랫목 활동에 대해 간간히 물어봐주고, 도움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아랫목 멤버들! 나에게 당신들은 정말 완전 킹왕짱 소중한거 알죠? ♡

레이: 임하한 이래로 이렇게 많은 여휴를 돌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각 여휴의 천차만별인 상태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이게 바로 '휴게실의 사각지대'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실은 환경개선 하겠다는 마음가짐보다 여휴에서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지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료집으로나마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어 행복해요. 그리고 역시 여휴가 킹왕짱인 듯. 우왕ㅋ굳ㅋ

맹: 장난삼아 꺼내본 자료집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이전 다시 봐도 괜찮았던 기획 같은데, 조금만 더 신경 쓸걸. 뿌듯함 반 후회 반이랄까요(사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긴 해요^^). 참 웃을 일이 많았던 아랫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갔으면, 조금만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하는 바람과 함께, 어쨌든 우리 아랫목 파이팅!!!!~♡

미리: 여러분 덕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난 이런 일 처음이라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됐었는데 그대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집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까란 불안감이 내 앞을 막고 서서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들이 있어서 여휴와 함께 한 1년 즐거웠어요. 아쉬움도 많이 남은 활동이었지만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자료집 까지 발간하는 쾌거(?)를 이루다니 무지 행복해요. 다들 고마워요. 우리, 또 만나.



이제 당신이 꿈꾸는 여휴를

안들어 봐요!



의외로 사랑한 2007 아랫목 자료집

안든 사람들

2007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운동팀 [아래:인목
레이(간호04), 맹(법학05), 미리(인문영상홍보06), 우주(간호04)]

도움주신 분들

킹왕짱 디자이너 나무님
완전소중♡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
감사합니다 여학생처